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25.

발 의 자 : 박재호 · 전재수 · 최인호
김정호 · 허 영 · 김수홍
한병도 · 위성곤 · 정춘숙
이상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촬영해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음.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‘신체’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고,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.

대법원은 위 조항의 해석상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.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간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처벌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

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).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신체”를 “신체(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)”로, “그 촬영물을”을 “또는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촬영물을”을 “촬영물 또는 재촬영물을”로 한다.

다만, 공중을 상대로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할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<u>신체</u> 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<u>그 촬영물을</u>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단서 신설>	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신체(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)----- -----또는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공중을 상대로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할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경우는 제외한다.
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	② -----

<p>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<u>촬영물을</u>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촬영물</u> 또는 <u>재촬영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